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58호 1판 (음력 9월 28일)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영세 상인·농어민 '울상'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을

위반신고 광주시 0·전남도 2건

초기 혼선 줄고 점차 안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한 달 만에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더불어 초기 일부에서 발생했던 혼란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우선 더치페이(각자 내기), 모임 자제 등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청탁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이는 애초 김영란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 선진 사회로의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초기 극심했던 혼선은 시일이 지나면서 빠르게 안정돼 우려했던 사회 혼란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관련 내용 위반 신고는 광주시 0건, 전남도 2건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에 신고된 사항은 공무원 2명이 자진해 알린 것으로 지난달 29일 5만원 상당의 버섯 한 상자를 집 앞에 놔두었다는 내용과, 지난 18일 아파트 경비실에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두고 갔다는 사안이다. 전남도는 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버섯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했으며, 양주는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초기 폭주했던 문의 전화도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관가 주변의 식당가를 중심으로 한 영세 상가에서 공무원들이 몸조심하는 바람에 찬바람이 불고, 선물로 주로 쓰였던 영광 굴비, 한우, 홍삼 등 농수산식품의 매출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도 작지 않다. 또 직장인의 승진 시 주고 받던 화분이나 결혼식 등의 화환 소비가 급감해 화훼 농가들은 심각한 매출 부진에 빠져 어려운 경기에 애꿎은 서민들만 고충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강원 지역에서는 한 민원인이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조사 시간 편리를 봐준 데 대해 감사의 표시로 직원들과 함께 먹으라며 성의 표시로 떡을 전달했다가 김영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의뢰됐다. 이같은 경우는 사회 상규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 공동체 구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산 분야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음식점 등 서민들이 입을 매출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로 정부합동TF를 구성해 법령 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를 어느 줄여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축사노예' 관심 가졌더라면… ▶6면
新팔도유람-경남 꽃축제 ▶18면
차두리, 슈틸리케호에 합류 ▶21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7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빗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 조선대 민중 총궐기 참가단 등으로 꾸려진 '2016 광주청년학생대회 준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예산관련 서명을 받는 퍼포먼스를 한 후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봇물 터진 시국선언…대학가엔 대자보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개…광주·전남 대학교수 200여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광주행동·조선대생들 집회…전남대 교정 곳곳에 대자보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 대학가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분개한 민심이 봇물처럼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3·4면〉

27일 전남대 교정에는 시국 관련 대자보가 등장했다. 전남대 곳곳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의 책임을 묻겠다. 11월 12일 총궐기대회에서 봅시다." "이 것은 나라가 아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최순실 나와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나붙었다. 전남대 12학번 학생, 사회학과 14학번 학생, 행정학과 13학번 학생이라고 필자를 밝힌 학생들은 3장의 개별적인 대자보에 하나의 요구를 담았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다.

이른바 운동권이 꾸린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이 아닌 취업을 위해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은 이날 오전 학생회관 벽면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대자보에 "(현 정권은) 재벌 소원을 들어주고… 백남기 농민 죽음에서는 시신 강탈이라는 논란을 부르고…. 하다 하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최순실의 꿈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 썼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제목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라고 뽑고, 대통령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책임을 외면하면 학생들은 결코 이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하며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민주주의 광주행동(광주시민단체 연대)이 '국정 농단 박근혜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다.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 민중 총궐기 성사를 위한 광주청년학생대회 추진위원회'도 시국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꼭두각시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순천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200여명도 시국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에서 물러나 의례적인 국가 원수만 맡고, 청와대 비서진·내각 총사퇴, 최순실 등 해외 체류자 시급한 송환, 거국 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주말인 29일 오후 4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주의 광주행동 주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찰 '최순실 특수본' 창조경제사업단 등 7곳 압수수색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등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확대는 전날 새누리당이 특검안 수용 방침을 전격 결정함으로써 사상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최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오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콘텐츠실과 체육정책실 국장급 공무원 2명의 사무실, 광화문 소재 창조경제사업단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등 7곳이다. /연합뉴스